



더위엔 물미끄럼틀
“시원해~ 재미있어~”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1일 전주시 전 동물원원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 가운데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미끄럼틀을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도, 시·군 민선7기 새 비전 공유

전북도, 상생협력 기획부서장 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단계 대응 설명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붐 조성 논의

전북도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내놓은 새로운 도정비전과 목표를 14개 시·군과 공유하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등 주요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1일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군 상생협력 기획부서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정비전 '아름다운山河 옹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5대 도정목표인 ▲삼각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안전·복지·환경·균형과 16대 핵심전략 등을 시·군과 공유했다.
또한, 2019년 국가예산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8월, 도와 시·군의 전

략적인 활동으로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단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불조성 방안, 시·군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 발굴 등 도와 시·군이 공조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민선7기 도와 시·군 공약의 세부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전 추진 방향을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도 공약과 연계 또는 협력이 필요한 공약들을 조정하여 정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또는 행사성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노력,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법령에 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등 도와 시·군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 시작되어 새로운 비전과 목표, 공약 등 도정과 시·군정이 다시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시군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포함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무료 서비스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 한국관광공사·SK텔레콤 통신사업자와 구축 협약
7억8000만원 투입 11월까지 설치 완료... 이달 시범서비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 통신사업자 간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공와이파이 지원 서비스는 정부 100대 사업 제31호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으로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내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 사업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자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한달동안 관광지 신청 대상 관광지를 현장 실사하여 39개소를 신청, 한국관광공사의 심의를 거쳐 7월 4일 전주예술테마거리, 군산 선유도 등 11개시군 39개 주요 관광지가 공모 확정됐

다.
사업비는 총 7억8천만원으로 국비 9360만원(12%), 도비 8580만원(11%), 시군비 2억1000만원(27%), 통신사업자 3억9000만원(50%) 투입으로 올해 11월까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검색, 길찾기 및 SNS 이용지원 등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말까지 6개 시군 270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기가 설치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가계비 부담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소통 간담회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통 간담회에 송하진도지사와 노병섭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도내 노동현안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완주군, 전북투어패스 판매 도내 2위

7월말 기준 5776매

완주군이 전북투어패스카드 판매 실적도 도내 자치단체 중 2위에 올랐다. 완주군은 올해 7월말 기준 판매량 집계 결과 5,776매를 기록, 도내 2위로 가장 많은 전북투어패스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만23매 전북투어패스를 판매해 도내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거뒀다.

올해도 군은 인터넷,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군청직원들도 전북투어패스 체험에 참여하는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토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가 전북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Jeongeup-si Council